

논문접수일 : 2014.06.20

심사일 : 2014.07.04

게재확정일 : 2014.07.29

난설헌의 캘리그래피와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문양을 이용한 커피 잔 패턴디자인

A Study of Coffee cup Pattern Design based on Nanseolheon's Calligraphy and Art
Deco's Geometric Patterns

주저자 : 양순영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강사

Yang soon-yo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Living Art Design

교신저자 : 임혜숙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Im hye-so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Living Art Design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패턴분석

- 2.1. 난설현의 캘리그래피 활용 패턴 분석
- 2.2.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문양 분석
- 2.3. 초서체 와 기하학적 문양을 이용한 모티브와 패턴디자인

3. 잔(杯)의 문양디자인 사례 및 활용

- 3.1. 잔(杯)의 종류 및 문양사례
- 3.2. 최종디자인 결과물과 적용예시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관광을 테마로 하는 중소도시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홍보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그 지역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상품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문화상품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문화자원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현대인들의 상품 선호성향은 상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상품 속에서 문화적 가치가 담긴 미적, 예술적 측면까지도 함께 즐기며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릉커피축제를 비롯해서 커피에 관련된 문화가 활성화 된 강릉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릉의 역사인물 난설현 허초희의 캘리그래피를 활용하여 잔(杯) 도자상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턴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패턴으로 활용할 이미지는 난설현의 친필서체 캘리그래피와 아르 데코 양식의 기하학적 문양을 접목시켜 창의적인 패턴으로 디자인하고 이를 잔 종류에 적용하여 문화상품에 활용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선행논문으로 난설현의 친필서체를 텍스타일디자인에 활용하는 패턴디자인을 연구하였다.(양순영,임혜숙2013) 선행논문에서 연구한 패턴디자인은 텍스타일디자인에 국한된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초서체의 특징인 곡선과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문양을 접목하여 개발한 패턴디자인을 잔(杯)에 적용시켜 지역의 역사 문화적 요소와 현대디자인의 기하학적 형태가 접목된 새로운 패턴으로 개발하

고자 한다. 지역문화를 활용한 패턴디자인은 타 지역의 도자문화상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상품으로서 강릉의 이미지 구축과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커피잔 패턴디자인, 난설현 친필서체, 아르데코 기하학적 문양

Abstract

Tourism-themed small local cities have explored their own cultural resources and developed diverse cultural products to establish and advertise their own local identity. Now, cultural products are a useful means to promote local economy by maximizing the strength of local cultural resources. In the modern times, people tend to see cultural values from both artistic and aesthetic aspects when they buy a product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 produ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pattern design which could be used as a cup pattern in ceramic ware using the handwriting of Nanseolheon Heo Cho-hui who was born in Gangneung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in which coffee-related culture is flourished including Gangneung Coffee Festival. For images to be used as patterns, Nanseolheon's handwriting and Art Deco's geometric patterns were mixed and designed in creative patterns. Then, they were applied to tea designs to develop them into cultural products. Prior to this study, the pattern design in which Nanseolheon's handwriting was used for textile design was studied. (Yang Soon-yeong, Im Hye-sook, 2013) In previous studies, pattern design was limited to textile desig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evelop new patterns which integrated local cultural factors and modern design after applying the developed pattern design to a cup. It appears that local culture-based pattern design would make Gangneung's ceramic cultural products differ from those in other regions and mak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ts own image as a unique local cultural product.

Keyword

Coffee Cup Pattern Pattern Design, Nanseolheon's Calligraphy, Art Deco's Geometric Pattern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강릉의 역사인물 난설헌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강릉의 역사인물을 대표하는 여성 중 한명으로 그녀에 대한 인식은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난설헌과 관련된 문화상품은 현저히 없음을 본 연구자는 선행 논문에서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양순영, 임혜숙2013) 그 동안 강릉지역에서는 난설헌문화제 행사 및 허난설헌 다큐멘터리 제작, 허난설헌 연극의 강원도 순회공연 등을 비롯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난설헌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관광콘텐츠개발 및 홍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인물이 남긴 작품의 이미지와 의미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고하고자 선행연구로 난설헌의 친필서체를 활용한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친필서체만을 패턴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문화상품디자인 적용을 텍스타일디자인에 국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서체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라는 조형적 특성과 아르데코의 직선미의 조형적 특성을 결합하여 패턴디자인의 다양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개발된 새로운 패턴디자인은 도자상품인 잔(杯)에 적용하고자 한다. 강릉의 문화적 특성이 깃든 패턴디자인을 도자상품인 잔(杯)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커피문화가 활성화 된 강릉의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소재개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연구자는 선행논문에서 강릉시 관광공예품(양순영, 임혜숙2013)을 조사한 결과 도자공예가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공예품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자상품디자인은 상품제작의 특성상 완성까지 여러 번의 공정이 필요하므로 대체적으로 문양의 개발보다는 형태적 요소를 표현한 공예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에서 보여주는 문양들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보다는 익히 알려져 온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따라서 도자상품에서 활용할 문양은 전통문양 뿐만이 아닌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요소를 시각화하여 디자인 된 상품 개발로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적 요소가 디자인 된다는 것은 21세기는 창의력 중심으로 인문학과 예술이 융합되는 시대임을 익히 다양한 학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생소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적 자원이 바탕이 되어 예술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현시대에 새로운 소재에 감응을 느껴왔던 디자이너에게는 의미 있는 소재 개발과 지역 관광공예품 개발로 이어져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강릉시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커피축제가 자리매김함에 따라 커피거리가 조성, 활성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에 커피잔에 활용할 패턴디자인의 개발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잔 문양에 활용할 난설헌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의 구절 중에서 잔 도자상품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자들의 문양 패턴화는 「난설헌의 친필서체를 활용한 패턴디자인 연구」(양순영, 임혜숙2013)에서 이미 각 글자마다 패턴화 작업이 되었으므로 이를 재구성하여 패턴화¹⁾ 한다. 둘째, 난설헌의 캘리그래피와 결합시킬 기하학적 문양은 아르 데코 양식을 접목하여 단위형태의 기본도형을 모티브로 패턴화 한다. 그리고 난설헌의 서체 초서체 패턴화와 아르 데코 양식의 기하학적 패턴화를 접목한 패턴디자인²⁾을 한다. 셋째, 잔으로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 및 잔에 활용된 모티브와 패턴사례들을 분석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와 패턴디자인을 알아본다. 넷째, 잔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패턴화 된 디자인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다.

패턴디자인의 연구 방법은 난설헌의 서체 초서체의 필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초서체의 유연한 곡선미를 강조한다. 또한 아르 데코 기하학적 문양의 특징인 직선적 이미지를 기계적 반복적 형식으로 패턴화 한다.

개발된 패턴디자인은 잔의 형태 및 커피문화에 사용되는 제품에 문양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형태 모티브를 설정한다. 설정한 모티브는 잔과 제품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새롭게 연결 조합되어 제품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

난설헌의 캘리그래피와 기하학적 문양을 잔 도자상품 문양으로 활용하는 패턴디자인 개발에 이용할 프로그램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S5, 어도비 포토샵 CS3을 사용하며 현재 생산되는 잔 형태에 문양을

1) 본 연구에서 '패턴화'의 표기영역은 디자인의 소재가 된 초서체와 아르데코 기하학적 양식의 모티브들을 반복 연결한 이미지를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 '패턴디자인'의 표기영역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잔 디자인에 활용될 초서체 패턴화와 아르 데코 기하학적 패턴화가 반복 연결된 이미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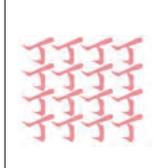
컴퓨터그래픽으로 구성한다.

2. 패턴분석

2.1. 난설현의 캘리그래피 활용 패턴 분석

난설현의 캘리그래피는 난설현이 남긴 231개의 시 중에서 유선사 10번째 시이다. 이 시의 문자는 시 구절 28글자 와 연도표시 이름을 포함하면 모두 35글자이다. 각각의 글자는 이미 선행논문에서 패턴화 작업이 되어 있으므로 선정된 글자의 모티브 패턴은 연구 발표 된 패턴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재 구성하여 패턴화 한다. 본 연구에서 문양으로 개발하여 패턴디자인에 접목할 할 문자는 35글자 중에서 12글자를 활용하여 6개의 패턴화를 [표 1] 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패턴화는 조형미에 기초를 둔 글자의 조합과 색상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글자의 선택은 난설현의 서체 초서체의 특징이 돋보이는 흐르는 듯 유연한 선이 강조 된 글자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양식의 모티브에 조화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초서체 패턴화이다.

초서체 패턴화 1		
		
향(香) 과 음(陰)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bright Tone의 색조이고 색상은 대조적인 보색배색으로 분홍과 초록을 선택하였으며 색상분리가 강조된 스트라이프 형태인 패턴화이다.		
초서체 패턴화 2		
		
향(香) 과 음(陰)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bright Tone의 색조로 유사색상인 보라와 분홍을 선택하여 격자문양인 스퀘어(Square)패턴으로 배열하여 화려함의 반복시켰다.		
초서체 패턴화 3		
		
화(花) 학(鶴)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동일색상의 파랑색을 선택하고 색조를 light Tone과 vivid Tone으로 색 변화를 주었다. 학(鶴) 글자를 상징적 모티브로 중간에 크게 배치하		

고 화(花) 글자를 주변에 마름모 형태인 다이아몬드(diamond) 패턴으로 배치하여 공간감을 주었다.		
초서체 패턴화 4		
		
설(雪) 과(裹)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밝은 주황 색상을 두 글자 모두 사용하여 두 글자가 하나로 연결된 방법으로 구성해 나갔다. 흘림체로 된 서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두 글자의 연결은 추상화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된 패턴화이다.		
초서체 패턴화 5		
		
일(日) 정(丁)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동일색상인 빨강색으로 색조를 light Tone과 dark Tone으로 구분하여 색 변화를 강하게 대조시켰다. 획수가 적은 글자를 선택해 단순함이 강조된 패턴을 연출하였으며 단순한 글자를 반복 배치함으로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 있으나 색조의 변화로 인해 경쾌함이 나타난다.		
초서체 패턴화 6		
		
모(暮) 운(雲) 초서체 글자를 이용하여 bright Tone의 색조로 유사색상인 주황과 분홍을 선택하였다. 곡선이 강조된 두 글자를 격자로 연결하여 반복구성을 하며 부드러운 색조와 더불어 리듬감과 울동감이 더해 곡선미를 강조시킨 패턴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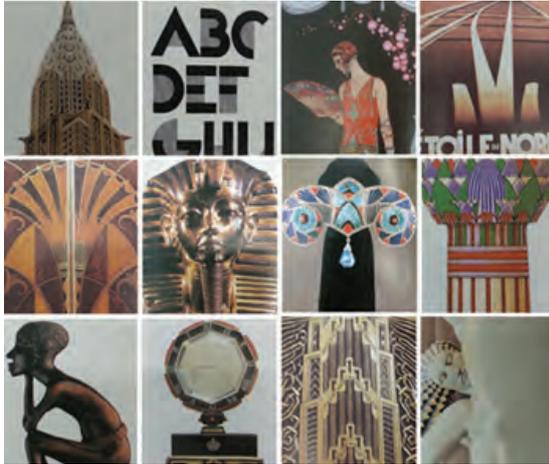
[표 1] 난설현 초서체 패턴화

2.2. 아르 데코 기하학적 문양 분석

유연한 곡선의 특징을 지닌 난설현 캘리그래피에 직선의 기하학적 양식을 접목한 패턴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 아르 데코 양식을 도입한 배경은 아르 데코는 현대디자인에서 모더니즘 이후 기계적이며 기하학적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양식이다. 따라서 아르데코의 공통된 모티브에서 직선의 기하학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아르 데코』라는 용어는 응용미술 및 건축분야에 새로운 하나의 양식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192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장식미술전 Exposition des Arts Décoratif』이라는 한 전시회의 이름으로부터 생겨났다.(페니 스파크 외 1990,100p)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양식은 고대문명과 현대의 조화, 원시적 아프리카 조각에서 받은 충동, 그리스 오더의 문양들, 화려한 무대생활에 대한 동경, 스피드 한 차선 포스터, 유행을 따르는 취미 등이 사회적 배경이 되어 산업제품, 건축, 회화, 조각, 그래픽, 인테리어, 가구, 패션, 무대디자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하학적 모티브들은 모더니즘 디자이너들에게는 우호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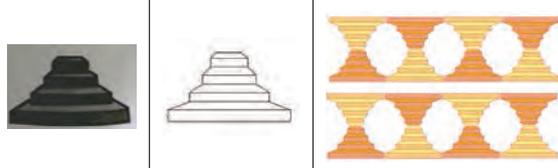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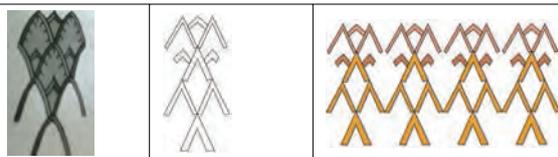


【그림 1】 아르데코 양식의 모티브들(건축, 타이포그라피, 포스터, 실내장식, 장신구, 조각 등)

아르 데코의 모티브들은 【그림 1】과 같이 입체파의 각진 불균형과 비엔나 디자이너들의 기하학적 모티브 등을 채택하였고 투탄카멘 묘의 발견과 아즈텍 문명 및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티브들로 인해 기하학적 상호작용과 극적인 색의 대조가 강조되었다. (페니스파크 외 1990, 102p) 공통된 모티브들을 활용한 기하학적 패턴화는 【표 2】와 같이 8개의 패턴양식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Art Deco 기하학적 패턴화 디자인 전개		
원형모티브	도형모티브	패턴화
기하학적 패턴화 1 - 기하학적인 부체의 모티브 -		
디자인 의도 - 부체꼴모티브를 난색과 한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모티브의 전개는 각 모티브를 정반대방향으로 배치를 바꾸어 가면서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유동적이고 활동적인 패턴으로 구성하였다.		

기하학적 패턴화 2 - 청동으로 되어 있는 구름 틈새로 비치는 햇살의 모티브 -		
디자인 의도 - 반원의 원형 창 형태의 모티브를 스텐드글라스 창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위해 색상선택은 창공의 파랑, 금속의 황동색, 자연 빛의 노랑, 초록을 사용하였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주황색을 사이에 배치하여 연속적인 배열을 하였다.		
기하학적 패턴화 3 - 서로 맞물려 있는 기하학적 형태들 -		
디자인 의도 - 삼각, 사각의 기하학적 형태들을 서로 맞물려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 큐브공간과 같은 기계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색상 선택은 색상환에서 파랑과 분홍 사이의 색상을 선택하여 기계적으로 차가울 수 있는 도안에 우아함과 화려함을 더하였다.		
기하학적 패턴화 4 - 번개가 치는 옛 바빌로니아의 신전과 지그재그 -		
디자인 의도 - 강렬한 파상선을 정렬된 지그재그 선으로 변형하여 일률적인 형태로 반복적인 연속선상에 배치하였다. 주요 색상은 파랑, 초록, 보라, 연두색을 선택하여 자연시물의 생성, 시원함, 청량감, 상승감 등을 시각적으로 연출하였다.		
기하학적 패턴화 디자인 전개 5 -갈매기 무늬 장식-		
디자인 의도 - 산(山) 형태의 모티브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기계적 움직임을 주었다. 기본모티브 형태가 산의 형태를 닮아 겹겹이 보이는 동양의 산 형태를 연상하게 하여 색상 선택에 있어서 무채색을 사용하여 수묵적 느낌을 주었다.		
기하학적 패턴화 디자인 전개 6 -폭발하는 별-		


<p>디자인 의도 - 불꽃이 퍼지는 듯 한 기본 모티브로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색상 선택은 아르데코의 밝은 노랑과 황금색을 주요색상으로 선택하였다. 패턴화는 브릭(brick)형태로 동일형태가 어긋나게 배치하는 패턴디자인을 시도하여 장식효과를 극대화 시켰다.</p>
<p>기하학적 패턴화 디자인 전개 7 -아즈텍 모양의 대좌와 이집트 피라미드의 토대-</p>

<p>디자인 의도 - 계단 모양의 대좌인 삼각형태 모티브를 연속 반복 회전하여 트라이앵글(Triangle) 과 다이아몬드(Diamond) 패턴이미지를 연출하였고 노랑과 주황의 유사색상을 반복 사용하여 고대문명의 황금장식을 연상시키는 색상으로 패턴화 하였다.</p>
<p>기하학적 패턴화 디자인 전개 8 -아프리카 원시 조각 형상-</p>

<p>디자인 의도 - 건축물의 조각 장식이나 창문 등에 표현되는 장식 모티브를 원시 인물조각과 같이 기하학적인 이미지로 변형한 형상이다. 한 모티브를 연속 배열한 패턴은 황동색을 사용하여 금속성의 느낌을 주었다.</p>

【 표 2 】 아르 데코 양식의 공통된 모티브와 기하학적 패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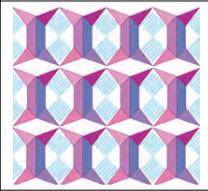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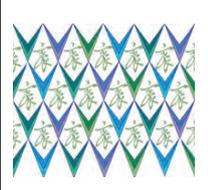
【 표 2 】의 패턴 분석표는 아르 데코의 공통된 기본 모티브들을 제시하였으며, 패턴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티브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도형작업을 하여 각각 한 개씩 단위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단위형태를 조합 연속 배치하여 패턴디자인에 활용할 기하학적 문양을 8가지로 분류하여 패턴화 하였다.

패턴화는 동일모티브를 연속적으로 리피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색채 활용은 아르 데코가 특정한 색채체계를 선호하였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색상 구성을 하였다. 아르 데코는 밝은 노랑, 쇼킹한 분홍, 자극적인 청색, 매혹적인 노랑, 탕고 오렌지색, 금속 색조의 황금색, 백금색, 은색, 동색 등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야수파의 격렬한 색채들이 중심색조가 되어 실내분위기를 변형시켰고 장식적인 부속물을 지배

했다.(페니스파크 외 1990,100p) 8개의 패턴화에 대한 디자인 의도는 【 표 2 】의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2.3. 초서체 와 기하학적 문양을 이용한 모티브와 패턴디자인

본 연구는 난설현의 초서체와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문양을 조합하여 아날로그 와 디지털적인 감성을 한 패턴에 디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패턴양식의 패턴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제시한 난설현의 초서체 패턴화와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패턴화를 조합하여 잔 도자 제품에 활용할 8개의 모티브와 패턴디자인을 【 표 3 】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 3 】에서는 조합된 단위형태 모티브를 연결한 1개의 패턴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잔 문양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잔 도자제품의 형태에 어울릴 수 있도록 동일한 모티브를 재배치하여 패턴디자인의 변화를 줄 것이다.

초서체와 기하학적 문양 패턴디자인		
모티브	패턴디자인	디자인 전개 의도
		패턴디자인1 초서체 패턴화 2번과 기하학적 패턴화 2번의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패턴디자인2 초서체 패턴화1번과 기하학적 패턴화 1번의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패턴디자인3 초서체 패턴화 3번과 기하학적 패턴화 3번의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패턴디자인4 난설현의 친필서체 11번째 글자인 과(裹)와 기하학적 패턴화 4번을 분리하여 패턴디자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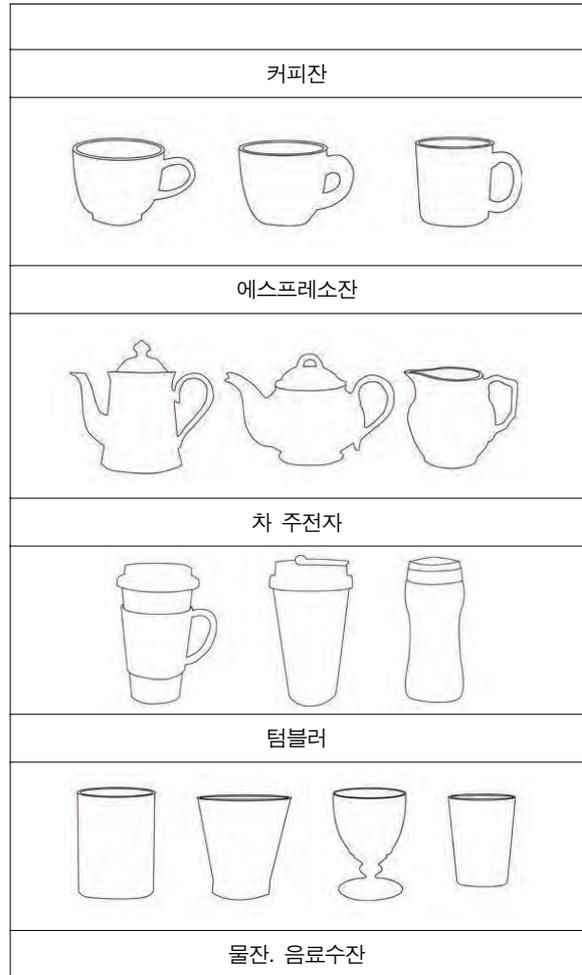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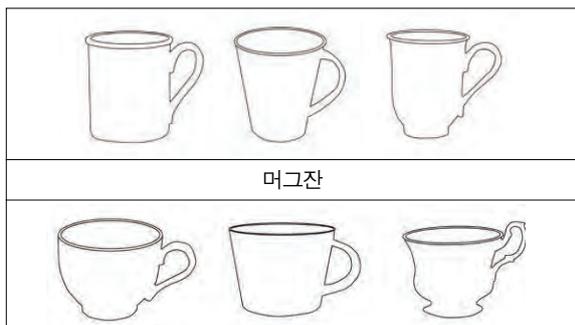
		패턴디자인5 초서체 패턴화 5번의 글자 일(日)의 패턴화와 기하학적 패턴화 5번을 격자형식으로 전개하였다.
		패턴디자인6 초서체 패턴화 6번의 모(暮)를 연결하고 기하학적 패턴화 7번을 분리하여 패턴디자인을 하였다.
		패턴디자인7 초서체 패턴화 3번의 화(花)와 기하학적 패턴화 6번의 모티브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하였다.
		패턴디자인8 초서체 패턴화 5번과 기하학적 패턴화 8번을 일직선상으로 배열 하였다.

【 표 3 】 난설현 초서체 패턴화와 아르 데코 기하학적 패턴화를 조합한 패턴디자인

3. 잔(杯) 문양디자인 사례 및 활용

3.1. 잔(杯)의 종류 및 문양사례

개성 있는 현대인들은 각자 자신만의 취향으로 잔을 선택한다. 새로운 상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출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잔의 종류를 거론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의 형태를 중심으로 잔의 종류를 주전자를 포함하여 6종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커피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은 【 표 4 】와 같이 머그잔, 커피잔, 에스프레소잔, 차 주전자, 텀블러, 물잔 등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그밖에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용기들도 있다.



【 표 4 】 잔(杯)의 형태

커피음료는 15세기경 아랍인들에 의해 우연히 시작되었다. 술이 금지된 이슬람 세계에서 대체음료로 보급되면서 커피는 중동지방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의 많은 커피애호가들이 양산되면서 커피를 즐기게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커피문화를 즐기고 있다. 커피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의 디자인이다. 따라서 문양사례는 해외 브랜드 제품 2회사와 국내도자기 회사인 한국도자기의 문양에 대해 조사하였다. 해외브랜드 문양 및 패턴디자인 사례는 영국의 'Portmeirion'과 미국의 'French Bull'의 문양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디자인 Portmeirion은 1925년 북아일랜드에 건설된 아름다운 건축물 Portmeirion village의 Gift Shop을 위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Portmeirion village의 특징인 꽃, 풀, 과일, 나비, 곤충, 새 등을 모티브로 삼아 시리즈별로 잔뿐만이 아니라 식기와도 관련된 모든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1961년 수잔 윌리엄스 엘리스는 브랜드 명칭을 오늘날의 Portmeirion

도자기로 수정하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1960년대에 '토텐(Totem)', '매직시티(Magic City)' 와 '매직가든(Magic Garden)' 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탄생시켰고, '좋은 디자인이 곧 훌륭한 비즈니스다' 라는 철학으로 Portmeirion은 크게 성공하였다. (네이버 두산백과: 포트메리온도자기) 미국 뉴욕에서 출시된 French Bull은 디자이너 재키 사피로가 탄생시킨 브랜드로 북고풍의 기초조형과 식물문양을 모티브로 삼아 패턴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따뜻하고 발랄한 감성의 vivid 색조를 주요 테마로 잡고 있어서 강렬하고 밝은 팝아트적인 색채감을 주어 모던하게 재해석 된 디자인이다.



Portmeirion 잔 문양디자인 (보타닉가든, 로즈, 아메리칸 버드, 허밍버드 시리즈)
1972년에 디자인 된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은 오늘 날까지 수십 년간 브랜드의 대표 디자인이 되었다.(자료출처 <http://search.auction.co.kr/search/search.aspx?keyword=%c6%f7%c6%ae%b8%de%b8%ae%bf%c2>)



French Bull 문양디자인 및 문양활용 잔 (재키 사피로가 디자인 한 달라이트, 달리아, 리쉬, 링, 멀티도트, 모자이크, 바인, 실버로즈, 지기, 키스, 핑크 페이스리, 활타지아 문양디자인과 문양을 활용한 머그잔)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frenchbull88?Redirect=Log&logNo=80193240811>

[표 5] 모티브 및 패턴디자인 활용 사례

[표 5] 에서 보듯이 Portmeirion은 영국의 전원의 자연적 풍경을, French Bull은 뉴욕의 현대화된 문화적 요소를 독창적으로 잘 나타내어 문양모티브와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여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에 다양

한 패턴문양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자기에서 생산하는 도자제품 중에서 문화적 모티브를 살린 브랜드의 특징이 나타난 것은 [표 6] 에서와 같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상품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잘 표현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초충도의 가지, 부용화, 양귀비, 여뀌를 이미지로 넣은 접시, 수저받침, 머그세트.
자료출처 <http://www.buyhankook.com/front/productlist.php?code=002>

[표 6] 한국도자기에서 생산하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문양을 활용한 도자기 문양디자인.

3.2. 최종디자인 결과물과 적용예시

[표 7] 은 [표 4] 에서 제시한 잔의 형태와 [표 3] 에서 제시한 패턴디자인을 시물레이션 하여 패턴디자인의 활용 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물레이션에 활용한 잔 도자제품은 [표 4] 에서 제시한 잔의 형태 중에서 머그잔, 커피 잔, 차 주전자, 텀블러를 각각 1종류씩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 별도로 잔 받침, 티 타월을 추가하였다. 패턴디자인은 잔 도자제품의 형태에 따라 [표 3] 의 패턴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표 3] 의 모티브를 재배치하여 패턴디자인의 변화를 주었다. 즉, [표 7] 에서와 같이 머그잔, 텀블러, 티 타월은 [표 3] 의 패턴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형(異形)적이고 원형인 형태의 커피 잔, 차 주전자, 잔 받침에는 동일한 패턴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잔 도자제품의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하게 모티브를 재배치하여 디자인한 패턴을 적용시켰다. 이처럼 [표 7] 에서 보듯이 동일한 모티브 일지라도 제품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 구성한다면 다양하게 패턴디자인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진다.

패턴디자인의 활용 안 적용 제시							
패턴디자인	모티브	머그잔	커피잔	차 주전자	텀블러	잔 받침	타월

[표 7] 패턴디자인의 활용안 적용제시

4. 결 론

우리나라의 대도시 및 중소 도시들의 문화상품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난 상징적 이미지로 그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문화상품을 살펴보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패턴디자인은 부족하여 변화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속에서 상징적인 모티브를 발굴하여 패턴화 하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시각적 측면에서는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유연한 곡선의 조형미를 가지고 있는 난설현의 서체 초서체 와 기계적이며 간결한 직선의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아르 데코 기하학적 문양을 접목하여 곡선과 직선의 조합에 의한 현대적 감각의 모티브와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난설현의 서체 초서체와 아르 데코의 기하학적 문양을 접목하여 동양의 전통정신과 서양의 문화가 한 패턴에 공존하는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된 패턴디자인을 개발 연구하였다. 셋째, 개발된 패턴디자인은 잔(杯)도자상품에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문화상품 및 생활용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 문화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는 패턴디자인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좋은 소재 및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광대웅 외 (1990). 『디자인.공예 대사전』. 美術公論社.
- 김희정 (2007).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 다운 샘.
- 매일경제연구소 (1997).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디자인개발 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 장정룡, 양언석 역 (2000). 『허씨 오문장가 한시국역집(許氏五文章家 漢詩國譯集)』. 강릉시.
- 장정룡 (2007). 『허난설현 평전 - 불꽃같이 짧은 생애의 찬란한 시문학』. 새문사.
- (사)허균.허난설현선양사업회 발행 (2009). 『교산 허균과 난설현 허초희 논문집』. 동녘출판사.
- 허미자 (2007).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락시미 바스카란 (2009). 정무환 옮김. 『한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시공사.
- 필립스 지음, 김숙 옮김 (2005).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 페니 스파크 외 (1990).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 구경자 (1997). 「한자를 조형화한 도자 조형성에 관한 연구-초서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 김강이, 홍석일 (2008). 연화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한글 자모의 패턴화 연구. 『디자인학연구』, 21(5), (193-202).
- 양순영, 임혜숙 (2013).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개발 방안 연구 - 강릉의 역사 인물 난설현 허초희 작품을 중심으로 - . 『한국디자인포럼』, 39, 133-142.
- 양순영, 임혜숙 (2013). 난설현의 친필서예를 활용한 패턴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40, 185-194.
- Raymond Guidot 편저, 김호영 역. 『현대디자인의 역사 1940~1990』 HAZAN.
- http://www.lotte.com/main/viewMain.lotte?dpml_no=1&tracking=MH_DOTCOM_SUB 생활 주방 포트 매리온 (2014년 5월 17일 검색)
- <http://search.auction.co.kr/search/search.aspx?keyword=%c6%f7%c6%ae%b8%de%b8%ae%bf%c2> 포트 매리온 (2014년 5월 17일 검색)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4470&categoryId=40942&categoryId=32154> 두산백과 포트매리온 도자기(2014년 6월 3일 검색)
- <http://www.buyhankook.com/front/productlist.php?code=002> 한국도자기 초충도 (2014년 6월 11일 검색)